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조성 잔결음

토지보상·도시관리계획 용역...2028년 2월까지 부지 확보 입지 여건 검토·주민의견 수렴 병행 "미래 성장기반 마련"

나주시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을 위해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를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선정된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및 실증기반 구축 사업(인공태양 연구시설)'과 관련해 토지보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

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관계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단계별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연구시설이 들어설 약 103만㎡ 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수립 등 토지보상 전반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포함

하고 있다. 시는 2028년 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일정에 맞춰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 토지·지장물 조사에 착수한 뒤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8년 2월 부지 조성 및 제공에 나선다.

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입지 여건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

히 대상지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원활한 보상 협의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세우겠다는 방향성도 정립했다.

아울러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나주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부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가 최근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축제 자리매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 등 도시 브랜드 가치 ↑

순천 원도심의 문화와 미식을 결합한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최근 발표된 축제 인지도·이미지 조사에서 '지역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축제' 전국 7위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착한 축제'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원도심 상권과 소상공인에 활력을 더하는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 가격'과 대화용기 사용을 통한 '착한 환경' 실천까지 더해져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 등이 실시한 것으로, 예산 3억원·유동인구 10만 이상인 47개 축제를 대상으로 인지도, 방문경험, 지역 이미지 기여도 등을 종합 분석해 평가한 결과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문화예술 부문 대상' 수상에 이어, 전문가 평가와 일반 대중의 실질적 인지도라는 두 가지 핵심 지표 모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순천이 가진 생태와 정원의 가치를 도심 문화와 미식으로 확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는 체류



순천 원도심 중앙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2025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형 콘텐츠를 강화해 도시의 매력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개최될 '2026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순천의 차별화된 미식 콘

텐츠와 거리 예술을 한층 강화해, 전국에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미식예술 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완도, 8700종 도서 요약 전자 서비스

문학·경제·인문 등 핵심 내용 요약 제공

완도군은 바쁜 일상에서도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독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도서 요약 전자 구독 서비스'를 4월부터 운영한다.

'도서 요약 전자 구독 서비스'는 신간·베스트셀러의 내용을 핵심 위주(A4 5~10매 분량)로 요약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경제·경영, 인문 교양, 사회과학, 문학 등 분야를 망라한 8700여종의 도서 요약본을 제공하며, 추후 매월 20~30여종의 신규 도서 요약본을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특히 영미, 유럽, 일본 등 최신 해외 도서 2300여종을 함께 제공하고, 텍

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북, 동영상 강연도 이용할 수 있어 '듣고 보는 독서'가 가능하다.

또 매주 월요일 아침 6종의 도서 요약 정보를 알람톡으로 발송해 주는 '북 도시락'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자기 계발을 돕는다.

군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완도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도서 서비스는 군민이 두꺼운 책 한 권을 가볍게 읽으며 최신 독서 경향을 접하고, 디지털 환경에 발맞춘 독서 환경은 '책 읽는 완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여수 야경 즐기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시,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운행

여수시가 4월부터 아름다운 야경과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낭만버스 인기 코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의 운행에 들어간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기존의 버스킹 공연 대신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비트와 퍼포먼스에 뮤지컬과 문화관광해설이 어우러져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음악이 있는 축제'로 운영된다.

운행은 오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이후 신광장에서 출발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코스는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소호동 동다리 등 여수의 대표 야경 명소를 경유한다.

특히 올해는 극동항 프리마켓을 경우 코스에 포함해 탑승객들이 여수의 지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활기

를 더할 계획이다. 탑승객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신청 시연을 추천해 케이크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사랑의 세레나데'와 여수의 역사와 관광을 재미있게 배우는 '여수 퀴즈 팡팡' 등이 운영된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예약은 여수시 OK통합예약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일반 2만원, 여수시민과 학생 등 할인 대상자는 1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EDM 요소를 더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한층 젊고 활기찬 콘텐츠로 선보인다"며 "국동 프리마켓 연계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담양군은 최근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가사문학면 문화센터'를 건립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 전남도의원, 군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담양군청

장성, 전남생활체육대회 준비 음식점·숙박업소 관리 등 점검

장성군은 5월 열리는 '전남생활체육대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최근 전담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장성에서는 전남아르신생활체육대축전(5월 14일~15일), 전남생활체육대축전(9월 12일~14일),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10월 15일~16일)가 열린다.

이에 군은 최근 청사 상황실에서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 5월 '전남아르신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한 준비상황 점검에 주력했다.

음식점·숙박업소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상황, 교통 및 주차장 대책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성공 개최를 위한 부서별 협업 사항과 5월 23일~25일로 예정된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와 연계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장성=이향범 기자 lh6699@gwangnam.co.kr

담양 '가사문학면 문화센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비 40억 투입...무인카페·건강관리실·공유 미용실 등 마련

담양군이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가사문학면 문화센터'를 건립했다.

최근 열린 준공식에는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 전남도의원, 군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문화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유입 및 지역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20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가사문학면 문화센터와 지역역량 강

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가사문학면사무소 맞은편에 새로 문을 연 문화센터는 지상 3층 규모의 복합 시설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특별로 꾸며졌다.

건물 1층에는 이웃들이 언제든지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무인 카페 형태의 심터와 마음을 나누는 상담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자리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2층은 주민들이 건강관리실과 운영사무실을 갖췄으며, 3층에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이 가능한 다목적실을 비롯해 주민 편의를 위한 공유 미용실인 '꾸미방', 소규모 회의실을 마련해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건물 외부에는 에너지 사용용

도와 환경을 생각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다졌다.

센터는 앞으로 지역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다양한 활동과 주민 맞춤형 문화·복지 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 주도형 사업을 실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손수철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이웃 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사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화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문화 조성

다회용기 도입...탄소 중립 도시 실현 기여

화순군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 문화 조성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 문화를 개선하고 보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조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기존 일회용 식기를 다회용기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다회용기는 접시, 그릇, 컵 등 총 9종류로 구성됐으며, 장례식장 특성에 맞춰 다양한 음식을 담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됐다. 사용된 용기는 화순

후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철저한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쳐 다시 장례식장에 공급되는 자원 순환형 체계로 운영된다.

군은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위생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존 일회용품보다 더욱 청결하고 품질 높은 식기 서비스를 제공해 친환경 장례식장 이미지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기 도입은 플라스틱과 종이류 폐기물 발생을 감축,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도시' 실현에도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